

도내 예술가 중앙무대 진출 돕는다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술인 DB 활용 중앙 공모사업 참여토록 사업안내 서비스 진행

전북문화관광재단(이경운 대표이사)은 2022년 전북예술인 실태조사를 통해 구축된 DB를 적극 활용해 도내 많은 예술인들이 중앙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안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 10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을 시작, 오는 30일까지 접수가 진행되고 있어 도내 역량있는 예술가 및 예술단체들의 진입을 돕기 위해서다.

23일 재단에 따르면 운영 4기 전략방향 중 하나로 홍보전략 강화를 표방, 재단사업 및 도정성과를 도민에게 전달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홈페이지를 일부 개편해 주 이용객인 예술계 종사자들과 도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 정책동향과 중앙의 문화예술 관련 기관들의 이슈들을 정리해 공유하고 있다. 우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모가 시작된

에 따라 전북지역 예술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전달 매개 역할에 주력하고 있다. 향후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회관연합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문화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의 사업도 순차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예술인복지증진센터에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안내서비스 등 사업과정에서 생긴 관계망을 활용해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은 장르별 창작 지원분야와 정책영역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정책영역에 있어서는 예술가들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청년예술가 지원이 강화된 만큼, 지역의 역량있는 젊은 작가들이 성장과 경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사업홍보를 강화했다.

예술인창작지원의 대표사업인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의 경우 신청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선정률은 낮았다. 이에 재단의 플랫폼 역할의 확대도 단계별로 고민하고 있다.

올해는 교육과 홍보강화에 두고 향후 2024년부터는 전문가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앙공모사업에 제안하는 예술가 대상으로 맨투맨 컨설팅을 통해 선정률 높이는 것을 목표로 우수한 예술가들이 중앙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방침이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중앙-지역을 잇는 플랫폼 역할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 우선 지역이라는 이유로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소소하게 시작하겠다"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뿐 아니라 중앙단위 여러 기관들의 사업 및 정보를 분석해 예술가들에게 안내해 지역 예술가들이 정보부족으로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예술인복지증진센터와 창작지원팀(230-7442)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은성 기자

'김제시 문화의 날, 킱제 2' 개최

28일 김제향교 앞 광장서 체험·공연 등 다채롭게 진행

김제시는 오는 28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김제향교(김제시 교통 39) 앞 광장에서 '김제시 문화의 날, 킱제 2'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 체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지역의 공방·청년단체·청년작가 등과 협업하여 기존의 행사들과 차별화했다.

행사는 크게 취미공방, 청년장터, 문화공연, 야외극장, 거리미술관 등으로 구성되며, 주요 행사 내용은 △지역의 공방들과 꾸미는 문화예술 체험 부스 △청년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20여 개 청년장터, 스마트팜 △문화공연(별문쇼, 버스킹, 미술·서커스, 솜사탕 공연) 등이다.

컨테이너를 변형한 이동형 거리미술관에는 김성수 조각가의 '달을 겨누는 활-Bow Aim at the Moon' 전시회가 개최된다(2023.10.28.~11.27. 김제내아 앞). 김성수 작가는 김제에 작업실을 두고 전주와 서울을 무대로 활동하는 조각가로 포스코 미술관 선정작가, 아시아 현대미술 청년작가공모전 국회의장상 등을 수상했고, 강원국제 트리엔날레,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에 등에

참여했다. 이번 전시에서 조각가 김성수는 대형의 조형물과 드로잉작품 등을 함께 전시해 시민들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문화예술 행사는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 누구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 문화의 날'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전북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의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하여 매월 마지막 주를 문화의 날 주간으로 지정, 관내 문화시설과 단체 등이 진행하는 문화예술 사업을 확대·발전시켜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확보하고, 문화자치 기반을 마련하여 문화 힘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둔 사업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교육문화과 문화예술팀(540-3817)으로 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진하모닉 국악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성황리 개최

전북어린이국악관현악단 졸업생·지도교사로 구성



진하모닉 국악오케스트라(지휘자 진성수) 창단 연주회가 지난 22일 김제 카페 선암리 야외마당에서 단원과 관람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진하모닉 국악오케스트라(지휘자 진성수) 창단 연주회가 지난 22일 김제 카페 선암리 야외 마당에서 단원과 관람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진성수(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 역임) 지휘자를 비롯해 약 40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진하모닉 국악오케스트라는 모두 전라북도어린이국악관현악단 출신이다. 이번 공연 주제인 'rebuiding'에는 지난 인연들이 다시 만나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연주회는 양방언 작곡의 국악 관현악 'frontier'을 시작으로 해금 협주곡 '추상'(협연자 김희진), 한반도 아리랑 환타지아, 국악 관현악 '죽제', 모듬북 협주곡 '타'(협연 박영진) 등을 선보였다. 연주자들은 자연 속에서 관객

과 흥을 주고받으며 연주를 이어나갔다. 마지막으로 'fly to the sky'를 앵콜곡으로 연주하며 창단 연주회의 막을 내렸다.

진성수 지휘자는 "공연을 보러 외주신 많은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우리 음악을 맺어진 소중한 인연인 만큼, 앞으로 전북 도민에게 이바지 할 수 있는 단계로 성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희진(전라북도어린이국악관현악단 해금 지도교사) 악장 역시 "진하모닉 국악오케스트라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는 연주를 선보이고 싶다"고 전했다.

진하모닉 국악오케스트라는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앨범 제작, 정기연주회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군산어린이공연장 기획 상영회
내달 4일 SAC ON SCREEN '심청'

군산시가 오는 11월 4일 10시 30분과 14시에 군산어린이공연장에서 SAC ON SCREEN '심청'을 상영한다.

'SAC(Seoul Arts Center) on SCREEN 상영회'는 서울 예술의전당 우수 공연작을 10여 개의 카메라로 다각도 촬영해 5.1채널 입체 사운드 음향과 함께 UHD 고화질 영상으로 생생하게 담아낸 영상 작품을 어린이공연장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상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11월 기획 상영회 SAC ON SCREEN '심청'은 세계적인 유니버설발레단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효녀 심청의 이야기를 특별히 각색한 창작 발레로 2016년 서울 예술의전당 공연을 영상화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총 3막으로 심청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는 감동 스토리이며, 한국의 독창성이 살아 숨 쉬는 무대와 의상, 혼을 바쳐 춤을 추는 무용수들의 열연으로 동양의 아름다움을 담은 발레 공연이다. 특히, 대형스크린을 통해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화면과 현장감 넘치는 사운드도 함께 제공된다.

이번 공연은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티켓 링크를 통해 지정좌석제로 운영되고, 1인당 최대 4매까지 예약 가능하며 무료 관람으로 선착순 마감될 예정이다.

/군산=김관문 기자

완주 북적북적 책축제서 북토크 '오픈하이머' 열린다

28일 천문학자 이명현·도서평론가 이권우·전 국립과천과학관장 이정모 진행

천문학자 이명현, 도서평론가 이권우, 전 국립과천과학관장 이정모가 완주를 찾아온다. 23일 완주군은 이명현, 이권우, 이정모가 오는 28일 완주군 중앙도서관 일원에서 개최되는 북적북적 책축제에서 북토크 '오픈하이머' 진행을 맡았다고 밝혔다.

행사는 28일 군청 중앙도서관에서 열리며 영화 '오픈하이머'를 주제로 과학자의 선택과 책임에 관한 이야기를 깊이 있고도 재미있게 풀어낼 예정이다. 참석자는 현장에서 세 사람의 도서를 구매하고 사인까지 받을 수 있다.

이날 북토크는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를 원작으로 한 영화 '오픈하이머'를 주제로 과학자의 선택과 책임에 관한 이야기를 깊이 있고 재미있게 풀어나 관객과 소통할 계획이다.

이들 세 명은 모두 1963년생으로 올해 환갑을 맞이한 '이'씨 성을 가진 20년지기 친구들로 '환갑삼이(還甲三李)'라는 이름으로 동네서점, 도서관 등을 돌며 전국투어 토크 콘서트를 열어 독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참여신청은 <https://m.site.naver.com/1eku7>으로 하면 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립도서관 홈페이지(lib.wanju.go.kr)를 참조하거나 중앙도서관 290-265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완주 북적북적 책 축제에서는 작가와의



만남, 인형극, 공연, 플리마켓, 20여종의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낭만이깃든
대둔산 케이블카

전주매일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전북 완주군 운주면 대둔산공원길 55
(산북리 산23-30)

☎ 063-263-6621~2